인사청문회 '슈퍼 수요일'…불꽃공방 예고

野 김이수·김동연·강경화 정조준 총공세 예고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촉각

여야가 7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8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면대결에 나선다.

야당은 날 선 검증을 통한 자질 부족 후보의 낙마를, 여당은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동시 다발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이날 양측의 충돌 결과가 향후 정국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법제사법·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안전행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오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단,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가장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현충일에도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우리가 여러 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이나 상임위의 의견에 반해서 무리하게 절대 임명절차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상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는 수위 조절에 부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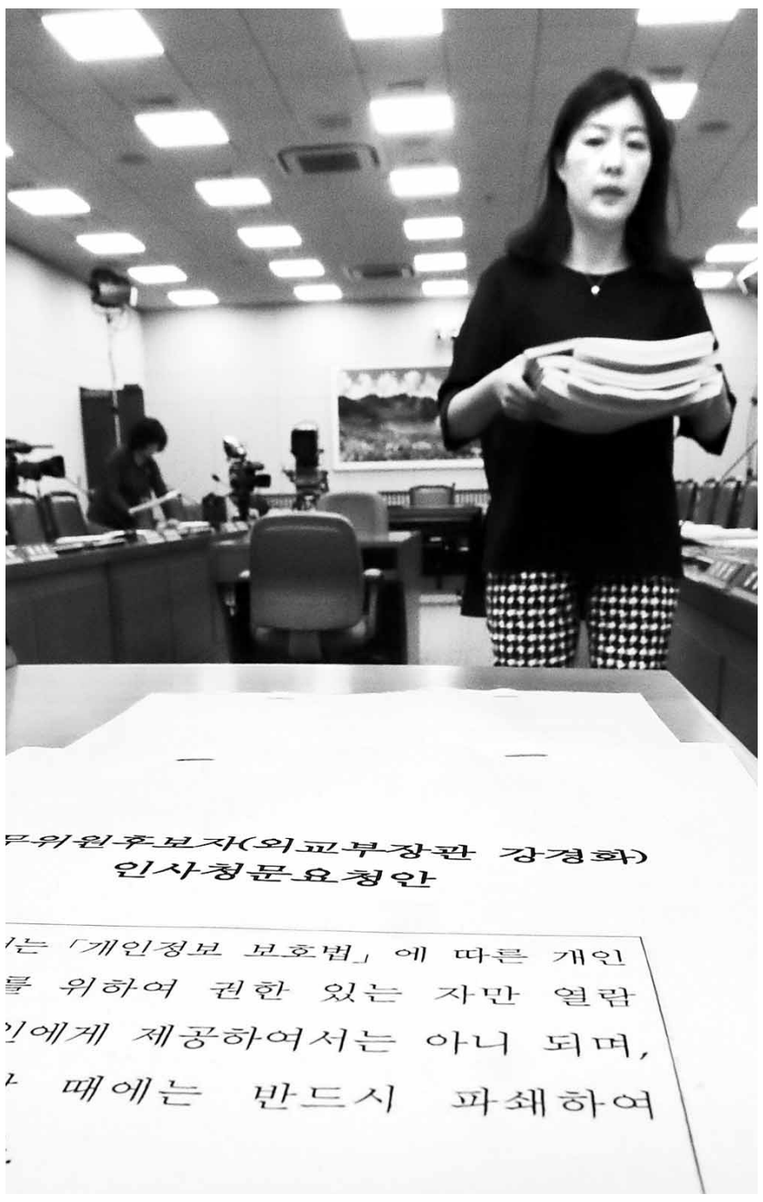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만큼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두고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시력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물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결정적인 임용 결격 사유가 없다며 총력 엄호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야권이 '발목잡기' 식의 반대에 나서기는 어렵지 않느냐면서도 야권의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문회 준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직원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청와대에 7가지 악재 올 것" 경고

헌재소장 인준·일자리 추경·사드·최저임금 등

광주 방문 기자간담회…"산들바람 다 불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6일 "이달에 청와대에 7가지 악재가 온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7가지 악재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일자리 추경, 사드 배치,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이 7가지 악재가 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공공일자리의 경우 30년을 봐야지 1~2년으로 안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도 야당이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정계 활동을 시작하면 무섭게 변해 버릴 것이다"며 "6월에 이같은 7가지 문제들이 오는 이유는 사회적불평등을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은 문재인의 시간이고 문재인 태풍이 불고 있으니 도와줄 건 도와주고 잘할 때는 박수 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일 청문 보고서 채택이 예정된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하는 강경화·김이수 후보자도 "모두 다 해주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5·18 기념식 장면을 보고 호남사람들이 감동을 했는데 국민의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5% 나온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아직은 물리적으로 안된다"면서도 "바람이 불면 잡초는 드러눕지만 바람이 그치면 다시 일어선다 이제 산들바람은 다 불었다 봄날은 간다"며 국민의당 역할론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총리 지명은 "발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고 평했다.

박 전 대표는 "경제부처 장·차관 예산실장과 중앙부처의 국·과장 등에 호남 출신 보강돼야 한다"며 취약한 호남의 SOC를 보완할 관련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음도 꼬집었다. /최권일기자 cki@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적격 인물"

정운찬 전 총리 등 498명 성명…"정치권·언론의 매도 실망"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사회각계인사 498명은 6일 성명을 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 직무에 적격인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김상조를 아끼는 사회각계인사 498명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장에 관한 인사 검증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순수한 충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김 후보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했는데도 김 후보자를 탐욕스런 인간이자 파렴치한 학자로 계속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 서명한 사람은 학계 380명, 변호사 55명, 회계사 19명, 기타 사회인사 44명 등 498명에 이른다.

김 후보자의 서울대 경제학과 은사인 정 전 총리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및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또 김 후보자와 함께 한국 경제학을 연구했던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장지상(경북대 경제학)·강남훈(한신대 경제학)·홍장표(부경대 경제학) 교수와 윤석헌(서울대 객원교수)·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고동원(성균관대 법학)·원승연(명지대 경영학) 교수,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등도 서명에 동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현충원서 뼈있는 인사말

정우택 "정세 예측불허"…추미애 "대표님만 도와주면 풀려"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 인사들이 뼈있는 말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들은 현안이 산적한 정국에서 협치의 방정식을 풀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꼬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눈총을 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추념식 도중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에게 "여느 때의 형식적인 현충일 행사와 달리 감동적"이라고 말했고, 정 권한대행도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고 추 대표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어 정 권한대행이 "국내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추 대표는 "정 대표님만 도와주시면 술술 풀릴 것"이라면서 "잘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추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인사청문회 및 추경 등 현안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정 권한대행에 '협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념식에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 권한대행에게 뼈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정 권한대행이 노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는 연임이 어려운데 연임이 되셨으니 한턱내라"고 말하자,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 곳간만 비운 게 아니고 직전 집권당 곳간도 다 비우셨나, 곤궁하신가 보다"고 농담을 건넸다고 추 대표가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가벼운 농담이야 주고 받을 수 있지만 대표급 정도 되면 협치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정치력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정위,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

"통신비 인하 의지 안보여"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후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주무부처를 상대로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이다.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기본료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의원은 "미래부는 국가를 위한 기구"라며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더 이해하고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가자료 등에 더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총 매입금액 : 11억원
▶1인 2,000만원 이상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